기 고

김 기 태 전남도의원

2023순천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 바란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은 아파트에 산다.

아파트는 단지 내 소소한 공간들이 있지만 내가 직접 가꾸는 마당은 없다.

때때로 피어나는 꽃, 가을이면 주렁주렁 매달려 눈부터 즐겁게 하는 과일나무와 푸른 잔디, 마당은 대개 정원을 품는다.

도시 전체가 정원을 품고 있다면 어떨까? 순천은 이제 말 그대로 정원을 품은 도시를 향해 가고 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가 확정된 것이다.

지난 7월 29일,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정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

3월 3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국제 행사 개최 승인을 받은 데 이어 모든 심의절차가 완료됐다.

2013년 박람회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을 주제로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효과도 상당했다. 박람회 기간 440만여 명이 방문했다.

서울대 이성우 교수에 따르면 1조 106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돼 해마다 500만명 이상이 순천을 방문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정원생태수도가 됐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산림청과 전남도, 순천시가 공동으로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 도심 일원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다.

행사에 앞서 K-정원의 세계화를 목표로 순천만국가정원을 리뉴얼하고 도심전역에 생활정원을 조성한다.

시민이 주도하는 일상 속 정원을 테마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정원으로 연결된 정원로드가 될 전망이다.

숲정원, 마을정원, 습지정원, 해안정원, 국가정원 리뉴얼 등 순천의 5色을 담은 자연정원도 조성된다.

박람회 기간에는 해외바이어 초청 정원비지니스데이, 정원마켓, 정원탐방, 그린투어리즘, AIPH총회, 국제조경세미나, 월드투어페스타도 열린다.

박람회 총사업비 467억원은 국비와 지방비, 박람회 수익금으로 충당된다.

외국인 32만 명을 포함 800만 명의 방문객을 목표로 하고 있는 2023 박람회는 경제적 파급효과 1조5000여 억원, 고용창출 2만여 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무엇보다 2023년 4월부터 10월이라는 박람회 기간에 이르는 준비과정 자체가 이목을 끈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는 시민주도 박람회라는 거다.

순천시는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박람회 기획과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시민추진위원회를 확대하고 24개 읍면동별 시민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달성하는 세계적인 롤 모델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박람회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전남도의 블루 이코노미와 국가 그린뉴딜 사업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는 인류가 행한 환경파괴로 발생한 기후위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임을 보여줬다.

요즘은 코로나19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처하는 게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됐다.

친환경 그린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박람회는 친환경 그린경제의 모델로써 순천시가 생태경제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고, 지속가능한 생태경제에 귀감이 될 것이다.

나아가 순천만국가정원,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 세계문화유산 선암사, 삼보사찰 송광사, 조상들의 삶이 깃든 낙안읍성 등과 함께 순천 전역이 생태도시이자 문화관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전남도의회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과 지원을 담은 조례안을 이달 중 심의한다. 조례 제정과 함께 조직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면 박람회 준비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2년여 기간 동안 꼼꼼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기원한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증을 일컫는 코로나블루까지 회자된다.

집 마당이 아니면 어떤가? 정원을 품은 도시 순천에서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로남불

어떠한 행동에 대해 남이 할 때는 비난하다가 자신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을 표현할 때 내로남불이란 말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다.

주로 한 주제에 대해서 논쟁이 갈리는 사안에 일관되지 못하게 논지가 오락가락하며 상황에 따라 자신이 유리한 쪽만 택하는 경우를 비판할 때 사용된다.

자기가 사랑을 하면 불륜도 사랑이지만, 남이 하면 그냥 불륜에 지나지 않는다는 위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다.

우리 주변에 흔한 일례로 내가 땅을 사면 투자이고 남이 땅을 사면 투기라고 비난과 험담을 한다.

한 청년이 있는데 그는 늘 "부자들은 돈 벌어서 뭐할까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라고 지인들에게 자주 말하고 다녔다.

시간이 흘러 그 청년은 노력을 통해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하지만 그는 부자는 기부를 많이 해야지"라고 떠벌리고 다닌 것에 비해 일절 기부행위를 하지 않고 수전노가 되어갔다.

이럴 때 이 상황, 이 사람을 보고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운전하는 친구가 한번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달렸는데 사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 친구를 보고 화를 내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되느냐고 화를 내면서 비난한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운전 할 때는 택시든 버스든 아랑곳없이 끼어들며 난폭운전을 한다고 비난하면서 내가 신호를 무시하면 남에게 피해준 것 없으니까 라며 슬며시 합리화 하는 이중적 태도를 갖는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보면 이중적인 태도를 많이 보면서 생활하지만 나 역시 그런 분류에 속했는지 또한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게 된다.

남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나부터 정형화되고 합리적인 잣대를 먼저 적용함으로써 남을 비방하기 전 나부터 나의 행동과 언행에 대해 뒤 돌아 보자.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내로남불에서 자유로운지. 올바른 가치관과 남을 배려하고 타인의 말도 경청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앞설 때 사회는 더 밝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국중균/광주북부소방서 현장지휘담당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외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